

한올타리

2020 WINTER

보스톤한인교회 소식지

KCB Newsletter

Vol 50 No 1 2020.01.26

편집: 홍보위원회

한올타리 편집팀 김한나 배광현 이재혁 정유미 정은아 윤경문 목사



섬기는 공동체

오래전 읽었던 소설에서 늘 제 뇌리에 남아 있는 대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교회를 향하며 외칩니다. “저기서 사랑이 죽었습니다.”

소설가에게는 교회는 사랑이 없는 곳을 넘어서 사랑이 죽음을 당한 곳이라고 늘 느꼈던 것 같습니다. 곧 교회 당 첨탑은 그에게는 사랑을 죽인 화살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첨탑위에 있는 십자가는 ‘섬김’의 상징입니다. 곧 사람들은 교회 첨탑을 보면서 ‘섬김이 춤을 추는 곳’이라고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가 첨탑에 올려져 있는 것이 아닐까요?

올해 저희 교회 표어가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섬김이 춤을 추게 하십시오. 그 때 우리는 이웃을 기쁨으로 섬기게 될 줄 압니다.

먼저 저희 교회가 위치한 브루클라인 주님들을 섬기십시오. 그리고 늘 열악한 환경 가운데 열심히 복음 사역에 힘쓰는 이웃 교회들을 섬기십시오. 저희 교회가 속한 보스톤 노회 교회를 섬기십시오. 그뿐 아니라 이 지역을 넘어 전국에 흩어진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드리십시오. 물론 그동안 우리가 늘 섬겨온 선교지를 위하여도 섬김을 계속하십시오.

그래서 교회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섬기는 공동체’라고 칭찬하는 날을 꿈꾸십시오.



2020년도 당회 및 각 위원회

당회

당회장 이영길 목사
 당회서기 장양술 장로
 재단 이사회장 이문영 장로

위원회

기획운영위원회
 건물 관리위원회
 교육1부 위원회
 교육2부 위원회
 교육3부 위원회
 교인1부 위원회
 교인2부 위원회
 국내선교위원회
 해외선교위원회
 예배예술위원회

위원장

이유탉 장로 이정규 장로님
 엄재관 장로
 강상철 장로
 한문수 장로
 방경남 장로
 이문영 장로
 안성완 장로
 이선영 장로
 이정민 장로
 박신영 장로

부위원장

황동준, 진정원 집사
 최학수 집사
 김옥식 장로
 윤미자 권사
 유승오 집사, 이해원 집사
 김경애 권사
 안명훈(1부), 김대식(2부) 집사
 1부 찬양대장 김한나 장로
 2부 찬양대장 김영범 장로
 회계 장봉준 집사

재정위원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홍보/출판/역편위원회
 쉼마 행사 위원회
 집사회장

김영범 장로
 김동규 장로
 김한나 장로
 장양술 장로
 최학수 집사

최학수 집사

인사위원회

당회서기 장양술 장로
 당회장 이영길 목사 (당연직)
 이사장 이문영 장로, 이유택 장로
 재정위원장 김영범 장로 (자문)

공천위원회
 회계 감사
 노회 총대

한문수 장로
 이정민 장로
 당회서기(당연직) 장양술 장로

김한나 장로
 강상철 장로

참조

- a) 선교 동아리: 국내선교위, 해외선교위, 정평환위
- b) 배움 동아리: 교육1, 2, 3위
- c) 섬김 동아리: 건물관리위, 기획운영위, 재정위, 집사회
- d) 만남 동아리: 예배예술위, 교인1, 2위, 홍보위, 쉼마행사위

2020년도 교구장 및 구역장

소그룹 성경공부반 인도자

교구	교구장	구역장
북동 구역	장양술	김동숙
북서 구역	박신영	노시일
중앙2 구역	한승희	김경애
중앙3 구역	안성완	오주경, 이소은
중앙4 구역	안성완	안성완
중앙5 구역	안성완	손영권
중서1 구역	김영범	권복태
중서2 구역	김영범	김제성
중서3 구역	엄재관	정정숙
중서4 구역	엄재관	김경섭
남동 구역	이선영	김연희
남서구역	이정민	이재일/서영아
영어구역	김세철	이혜승

반 이름	인도자	부 인도자
베드로반	권복태 장로	홍경자 장로
다니엘반	김동숙 집사	이숙재 권사
안드레반	박신영 장로	김영순 집사
빌립반	노시일 집사	이선영 장로
요한반	방경남 장로	김옥식 장로
바울반	이재익 집사	정하균 집사
부부청년반	한문수 장로	전은영 집사
강의식 성경공부	이요한 목사	

2020년 정기 공동의회 및 연례법인체 회의 보고

당회서기 장양술 장로

지난 1월 12일 2부 주일예배후 속개된 이 회의는 본교회의 최고 회의이며 올 한 해의 모든 사업을 결정하는 중요한 모임 이였습니다. 본 교회 활동 교인 351명중 89명이 참여하여 (정족수: 전체 활동 교우의 1/10 이상) 이영길 담임목사의 기도를 시작으로 전 회의록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공동의회 회순을 채택하였습니다.

지난 2019년 한 해를 돌아보며 각부처의 연례 서면보고서를 받아드리고 재정보고를 통해 전년대비 예산의 95%결산율을 보여 보고되지 않은 현금(+/- 5%)을 감안한 매우 건실한 한해였음을 보였습니다. 재정 감사를 맡으셨던 김한나 장로 (& 김대식 집사)는 성실한 기록과 알뜰한 살림을 해 주신 각 부처장님들과 회계집사님들께 감사를 표하고 약간 미흡한 투명성(지출 항목의 불투명, 영수증 첨부 미흡) 이외에는 하자가 없었음을 보고 하였고, 올 한 해의 예산은 전년 대비 5%가 많은 \$1,070,266를 세웠습니다.

또한 당회와 공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제직들은 참석인원 모두의 찬성(거수 선출)을 얻어 선출하였습니다.

당회 추천

권사: 김경희, 김동숙, 김영순, 김해숙, 윤영자, 이성숙, 주미옥(7명)

서리집사: 손효정, 양연숙, 윤헌자, 이석원(4명)

공천위원회 추천

재임안수집사: 구용한, 김용욱, 김은정(A), 김진기, 박진욱, 신보경, 이경환, 이동화, 이성숙, 이지훈, 이태호, 이혜승, 장보경, 장봉준, 정광근, 정재원, 주미옥, 주정대, 진정원, 최수경, 황지현, 정영선(23명)

신임안수집사: 강형민, 김태훈, 박상철, 신정욱, 신준섭, 이관화, 전은영(7명)

재임장로: 강상철, 김한나, 방경남, 엄재관(4명)

2020년도 공천위원: 위원장 한문수 장로 /부위원장 김한나 장로

/김영미(권사회) /구윤지(여선교회) / 최윤희(서리집사) / 김현모(청년부)

예배 10, 11, 12월 주일예배와 토요일 아침기도회를 은혜롭게 드린 가운데, 찬양대는 10월 13일 주일 뉴잉글랜드 연합부흥성회의 저녁집회 (장소: 성요한 교회)에서 은혜로운 찬양으로 보스턴 지역의 여러 교회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11월 24일에는 추수감사주일/창립 66주년 기념예배로 우리의 삶과 교회를 통해 말할 수 없는 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드렸습니다. 12월 1일부터 시작된 대강절은 아기 예수님의 오심과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림의 복을 누리는 절기로 지켜졌고, 12월 22일 성탄주일에는 성탄의 기쁨과 함께 성례식이 있었고, 박새힘 (박민제/김은지 가정) 아기의 유아세례와 안성민 군의 견신식이 있었습니다. 12월 8일 주일에는 13명의 단기선교단원을 과테말라로 파송하는 단기선교단 파송 예배가 있었습니다. 2019년 마지막 날 12월 31일 11시 30분에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예년과 같이 권사회/상록기도회원들이 한복을 입고 드리는 특순 찬양은 세월을 계수하며 깨닫는 깊은 은혜와 감사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2019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묵상기도와 2020년을 알리는 벨소리와 Happy New Year! 인사는 새해의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또한 김문소 장로님의 경자년 새해 덕담의 말씀은 넉넉한 웃음과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찬양과 기도의 밤 찬양팀이 주관한 ‘찬양과 기도의 밤’ (11월 9일 저녁 7시)은 찬양에 갈급함을 가졌던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여 2시간 동안 함께 찬양드리고, 또 말씀 (이영길 목사님)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 교인들은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열정적인 찬양 속에 스며나는 교인들의 밝은 미소와 서로 격려하며 수고한 분들에게 감사하는 모습을 통해 찬양의 기쁨이 잘 표현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한 달 이상 준비하며 수고한 찬양팀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이브예배 12월 24일 (화, 저녁 7:30) 성탄이브예배는 특별히 300명 이상의 많은 교우들이 본당을 꽉 메운 가운데 유년, 초등 주일학교의 밝고 귀여운 발표에 기쁨이 넘치는 순서와 전문 연주회를 온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찬양대의 특별한 성탄캐롤 모음곡으로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년과 같이 작은 불빛 아래 고요히 울리는 조유미 집사님의 찬양 (거룩한 밤)은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곳으로 우리를 옮겨 놓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 했습니다. 섬기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직회 12월 14일 토요일 (6시반)에는 교회 모든 제직들이 모여 식사와 교제 후 지난 1년간의 교회 제반적인 활동을 함께 돌아보며 의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정환 집사님이 준비한 동영상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여호와 닮은 삶’을 외치면 살아온 1년간의 교회활동을 살펴보고, 각 위원회의 보고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간관계상 충분한 토의와 질의의 시간을 가지지 못한 아쉬움은 다음해를 기억하면서 제직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예배예술위원회 팀별 활동

- 찬양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찬양대 파티 (1부- 김한나 장로댁; 2부-Longwood Towers) 가짐.
- 방송실: 정재원/최현구 집사의 수고로 낡은 비디오 시스템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비디오 믹스와 주변 기기를 교체했고, 추후 본당 카메라와 wire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각 부서에서 본당에 띄울 파워포인트 파일은 4:3 비율이 아니라, 16:9의 wide screen 비율로 준비할 것을 요청합니다.
- 찬양팀, 예배 슬라이드 준비팀, 예배위원들: 계속된 헌신적인 봉사로 은혜로운 예배 드려짐.

쉐마위원회: 장양술 장로

쉐마예배팀: 이영길 목사, 윤경문 목사, 박신영 장로

쉐마찬양팀: 김수영 목사, 정광근 집사, 육혜진 집사

쉐마기획팀: 이혜승 집사, 광동민 집사, 신준섭 집사

쉐마준비팀: 집사회 회장, 이지훈 집사, 최학수 집사

교인위원회: 이문영 장로, 안성완 장로

교육 1-2부: 강상철 장로, 한문수 장로

선교위원회: 이선영 장로, 이정민 장로

“쉐마의 밤”은 주일학교, 유쓰그룹, 청년부, 부청, 장년부 예배 등 각 세대와 부서에 따른 예배와 바운더리에 익숙해진 세대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세대를 넘어 문화와 생각, 그리고 삶을 이해하는 시간을 만들어주고, 더불어 일상적 예배에서 받을 수 없는 편안함과 쉼을 찾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올 2019년 한 해 동안에도 4번의 쉐마의 밤을 통해 보스톤한인교회의 성도님과 소통하였습니다. 먼저, 3월에는 “신임 제직 환영의 밤”으로 쉐마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신임 안수집사님들이 “보수동 집사들의 사순절 보내기”라는 제목으로 멋진 스킷을 선보여 주셨고, 서리집사들은 각 가정에서 만든 소개 영상을 통해 교인들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임 제직들이 함께 “너희를 위하여 +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불어 유쓰그룹이 농구대회에서 우승하여 받은 trophy presentation도 우리가 삶에서 나눌 수 있는 선교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6월 쉐마의 밤은 모든 족속과 백성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라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실천하는 이들을 만나는 시간으로 가졌습니다 (마 28:16). 보스톤한인교회에서 해마다 이어오고 있는 국내 선교와 해외선교를 소개하고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들을 사진과 동영상을 통해서 만나고 축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청년부의 정윤원 형제가 쓴 “연극 암행어사, 선교사를 만나다!”라는 촌극을 통해 청년1-2부 형제자매들이 선교사들의 삶을 현대식으로 멋지게 표현해 주었습니다. 특히, 삶에서 나누는 선교의 경험은 선교가 단순한 교회의 한 사업이 아닌, 우리가 짊어지고 이어나가야 할 “사명”임을 깨닫게 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유쓰그룹 선교팀의 공연은 “You are My All in All (주 나의 모든 것)”이라는 곡명처럼 중고등부 학생들이 하나가 되어 우리주님만이 우리의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 주었습니다.

9월 쉐마의 밤은 동아리의 밤으로 꾸며졌습니다. 배움과 교육 사역팀 (교육 1,2,3부 & 쉐마위원회)에서는 “Learning God is a Life-time Journey”라는 제목으로 교육부서의 활동을 보여주셨습니다. 섬김사역팀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 봉사하시는 기획위원회, 건물관리위원회, 재정위원회, 그리고 집사회의 활동들을 각 위원회를 통해 소개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남 사역팀에서는 교인위원회, 홍보위원회, 그리고 예배위원회의 수많은 활동들을 멋진 영상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더불어 황은하 어린이의 “르호봇의 노래”는 작은 것에 감사하고 약속을 믿고 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아름다운 음성으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11월의 쉼의 밤은 추수감사절 특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각 교우들이 준비 해오신 터키와 맛있는 음식들로 만찬을 가진 후에 2019년 우리 교회에 조인하신 새가족들을 환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로님-집사님 가족들과 새가족들이 짝을 이루어 각 가정들을 소개하고 교류함을 통해 우리 교회의 따뜻함을 전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담임목사님의 설교에서는 “Double Blessings”라는 주제로 한글과 영어를 사용하는 우리 3세대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멋진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쉼의 밤을 위해 헌신하시는 교우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매번 봉사해 주시는 교우님들의 섬김과 기도로 쉼의 밤은 앞으로도 “3세대를 이어가는 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그룹 성경공부 연말 행사



소 그룹 성경 공부 연말 행사 대강절 둘째 주일(12월8일) ECC Community Hall에서 있었습니다. 한문수 장로의 사회와 이영길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한 모임은 소 그룹 7반과 강의식 1반의 각반 소개와 발표 및 2019년의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소 그룹 성경공부 모임이 10년 차를 맞이하였고, 그 동안 매주 나누는 말씀을 일상의 삶 속에서 적용하고자 했던 각 반의 반원들의 모습을 다시 떠올리며 참으로 감동과 감사의 순간을 다시 기억할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요한 반(인도자: 방경남 장로)의 이재일 집사님은 처음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고 소 그룹 성경 공부 공동체를 통해 교회에 빠르게 적응하게 된 소감과 감사의 말씀을 주셨으며, 베드로 반(인도자: 권복태 장로)은 매주 나누었던 교제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누어 듣는 이들의 마음을 몽클하게 하였습니다. 다니엘 반(인도자: 김동숙 집사)의 반원들은 한 분, 한 분 위트와 감동으로 소개하였고, 안드레 반(인도자: 박신영 장로)은 반원 구성원이 대체로 믿음의 선배분들로 구성이 되어, 항상 소 그룹 성경 공부를 통해 한 주를 함께 나누고 섬기는 귀한 시간을 가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빌립 반(인도자: 노시일 집사)은 노시일 집사께서 작년에 새로 인도자를 맡으셨고, 그 동안 인도를 맡아 주셨던 이선영 장로께서 부인도자로 함께하시며 항상 말씀을 몸소 보여주시는 공동체였습니다. 부부 청년 반(인도자: 한문수 장로)은 젊고 다양한 전문적인 일을 하시는 반원들로 구성되어있어 말씀과 함께 활발한 섬김과 교제의 반이었습니다. 바울 반(인도자: 이재익 집사)은 매주 성경 말씀 속의 삶을 나누는 믿음의 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울반의 김문소/김계숙 장로님 부부와 빌립반의 윤원길/윤만강 장로님 부부께서 쿠바에 가정사역(11/1-7일)을 다녀오셨습니다. 남미의 성적 문란함과 세속적인 결혼관을 순결한 서약식과 교육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결혼관을 심어주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진과 말씀을 통한 사역 소개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끝으로 이요한 목사님의 인도로 이루어지는 강의식 성경공부반 또한 소그룹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에 올해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각 소 그룹 반원들 모두가 받은 은혜에 감사드리며, 새로 시작하는 올해도 각 반의 공동체 모임을 통해 서로 나누고, 섬기고, 배우며, 전하는, 귀한 말씀공동체가 되기를 서로 힘쓰는 저희들이 되어 봅시다. 보스톤 한인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내년에는 더욱 말씀과 가까이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2019년 성경 완독하신 분들(총20명)
김계숙, 김문소, 김희진, 김경섭, 김정인, 김현지, 김경희, 김켈리, 윤현자, 이숙재, 이재명, 이동화, 이재혁, 이지나, 이해원, 홍경자, 전은영, 조순래, 주미옥





Women Thriving, Korean Church host free multicultural dinner

Posted Nov 22, 2019 at 5:41 PM
Updated Nov 22, 2019 at 5:41 PM



Women Thriving, Inc. collaborated with the Korean Church in Brookline Village to provide a free di...



12월14일부터 12월 21일까지 Guatemala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약 19년 전에 New Jersey에서 목회하시다 소명을 받으신 김도연 목사님께서 선교지를 찾으시다가 Guatemala 에서도 Maya 인디언 후손들이 많이 살고 있는 오지 중에 속하는 Chisec이라는 지역을 발굴하여 선교를 시작하였습니다. 선교사님은 여러가지 사역을 하고 계시지만 그 중에서 교육 사역에 제일 중요성을 두고 계십니다.



어린이를 선교/전도하여 크리스찬으로 만들면 가장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고 나아가 지역과 나라가 기독교화가 될 수 있다는 야망을 가지시고 지금까지 열심을 다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2019 년도는 특별한 선교팀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세 교회 (Primera Iglesia Hispana de Boston, 퀸지 영생 교회 와 보스톤 한인교회) 가 협력한 팀이었고, 우연이었지만 연로하신 장로님 내외분과 성인들, 그리고 어린이까지 삼세대가 잘 어우러진 팀이었습니다. 여러가지로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여느 때와 같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와 여호와 너시를 다시 한번 체험한 단기선교 여행이었습니다.

교육팀 Carlina Velasquez, Andrew Sanchez, Samuel Sanchez,
임승영, 이재혁, 이지나, 이루미, 이루리
의료/약국팀 윤원길, 윤만강, 원영옥,
이지우, 이정민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Orlando 아름다운 교회에서 의대 지망생 엄태승 학생과 Guatemala 선교사 손녀 김현아 학생을 협력 단원으로 보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목회자들, 많은 부서들과 교우들께서 헌신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단기 선교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해외단기선교 소감문>

이재혁/이지나 교우

서울로 돌아가서 2년을 살았습니다. 다시 돌아온 지 두 달이 채 되지 않던 어느 주일, 주보의 해외단기선교 안내문을 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선교를 가본 적도 없고, 가면 뭘 하는 지도 모르고, 참 아무 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더군다나 의료 선교였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우리가 언제 우리 힘으로 한 게 뭐 있었나, 하나님이 다 도와주실 거야.’ 그렇게 저희 가족의 Guatemala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Guatemala city 공항에 내려서 작은 버스에 올라타고 구불구불한 산길을 여덟 시간 넘게 달려 도착한 그곳은, Guatemala에서도 가장 가난한 지역이라는 Chisec(치섹)이었습니다. 갈릴레아 선교공동체의 예배당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덜컹거리는 트럭 뒤에 올라타고 처음으로 현지의 교회를 찾았습니다. 흙 바닥에 세워진 작은 교회는 참 아름다웠습니다. 비누 방울 놀이 하나 만으로도 너무나 즐겁고 환하게 웃는 Chisec의 아이들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두 손을 꼭 모으고 기도하는 어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반, 모두가 함께하는 경건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선교팀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루 하루의 일정을 준비하고 섬길 수 있었습니다.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Chisec의 자연, 너무나도 열악한 삶의 환경이지만 그 곳에서 주님을 찾는 간절한 눈망울들을 보며 마음 속으로 찬양을 불렀습니다.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무더운 날씨와 높은 습도에도 불구하고, 매일 두 군데씩 현지 교회를 찾아다니는 강행군의 일정이었지만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한편, 이번 선교를 준비하는 순간부터 현지에서의 모든 일정이 저에게는 잔잔한 감동이었습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모습들, 모든 것이 참 불편하고 힘겨웠을 텐데도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선교팀 분들을 지켜보면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얼마나 위대한 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의 무모한 도전을 흔쾌히 받아주신 단장님과 부족함 투성이인 저희를 늘 격려해주시고 도와주신 팀원 분들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이토록 소중한 귀한 경험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깊이 감사합니다. 선교에 대한 새로운 사명을 갖고, 우리의 일상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Godly Home Ministry가정사역을 하고 와서...

김계숙 권사/김문소 장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행4:20)

2019년은 은퇴한 저희들이 가야할 방향을 하나님께서 잘 보여준 해입니다.

7월에는 국내선교위의 뉴 멕시코 나바호 인디언 선교를 할 기회를 주셨고, 11월에는 MOM (Messengers of Mercy) 선교회에서 하는 쿠바의 Godly Home Ministry (가정사역)에 함께 하여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축가를 7번 부르고, 사진 앨범들을 만들어 주고 왔습니다.

두 선교에서 발견된 공통점 하나는 성(Sex) 문란으로 가정이 파괴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파괴된 가정의 엄마가 모든 책임을 지고, 배 다른 여러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계속 다른 남자와 동거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삶을 열어 갈 수 있을까”의 해답인 **가정사역**에서 보고 듣고 체험한 몇 가지를 적어 봅니다.

가정 사역이란 ‘순결서약식’(끼세)과 ‘결혼식’입니다. ‘끼세’는 15살 전후의 소녀와 소년이 MOM이 제작한 교재로 **8주간 담당목회자의 교육**을 마쳐야 되는데, ‘순결서약식’ 때에는 순결서약서에 서명을 하고, 여자는 손에 반지를, 남자는 목에 십자가를 걸어줍니다. 교육내용은 ‘복음제시와 영접, 구원의 확신, 성경적 성 의식, 남녀 차이, 자존감, 가정 등입니다. **결혼예비학교 12주간**을 MOM이 제작한 교재로 **담당 목회자의 교육**을 마쳐야 ‘결혼식’을 하고 결혼 증명서를 받습니다. 교육내용은 복음제시, 구원의 확신, 남녀 성격 차이, 부부 대화, 갈등 해소, 용서, 자녀 양육, 재정 등입니다. 신부의 wedding dress, Bouquet, 목걸이 등은 MOM이 준비한 것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교육중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각자가 체험하는 것 같습니다.

이 가정사역으로 저희가 기숙한 Barbaro 목사(쿠바 정부의 종교부 부회장) 교회가 5년 전의 30명 교인 수에서 600명으로, Fauro 목사 교회는 3년만에 17명에서 152명으로 늘어나 교회를 증축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쿠바의 14개교단 모두가 GHM에 연결되어 참여합니다.

쿠바에서 가정사역이 성공하는 이유는 남녀 차별과 흑백 차별이 없고, 문맹이 없어 신앙 월간지 **Bible Time**을 거의 모든 교인들이 구독하면서 이 교재를 많은 **가정교회**에서 공부하며, 끼세나 결혼식에서 저희들이 제공한 사진 앨범을 이웃에게 보여줘 “사람 낚는 도구”로 잘 활용하며, 또 보수적인 목회자들의 가르침 등으로 보입니다.

이 쿠바의 성공적인 ‘가정교회’ 모습에서 1995년에 부임한 이영길 목사님의 첫 외침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길은 활발한 구역모임이 되어질 때이다.**”가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구역모임이나 주일 성경공부반에 얼마나 **열심히 참여하는가?**

우리는 이런 소그룹 모임에서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갈급하고 있나?** 물어봅니다.

기도: 하나님! 지금도 주님의 몸 된 쿠바 교회를 통해 불같은 성령님의 역사를 저희에게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고 체하게 하셨습니다. 2020년에는 우리 교회 구역모임과 주일성경공부반 위에 성령님의 역사가 넘쳐 나서, 회개의 역사와 사랑의 역사, 그리고 소망의 기쁨이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어 지길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Brookline Plastics By-Law 2020

2020년부터 브루클라인에서의 플라스틱 사용에 관한 법규가 새롭게 바뀝니다.

이미 브루클라인에서는 스티로폼 (Styrofoam) 사용이 금지되어 있지만 2020년부터는 일반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교회에서 식사나 모임시에는 허락된 제품을 사용하고 특히 사용 후 버리실 때에는 각별히 주의하셔서 교회가 벌금 물거나, 벌칙을 당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일회용품 구입과 사용시 아래 브루클라인에서의 공지를 참조하십시오.

Proposed Sustainable Food Containers and Packaging By-Law
Examples of how proposed changes will affect Brookline food vendors by 2019-2020

This document provides a summary of the most common products that may be affected by the proposed new regulations. It is important to evaluate all plastic food wares used in your business to understand how the regulations will affect you.

 <p>Not Allowed Plastic utensils most commonly made of Polystyrene (plastic #6) will not be allowed. Polyvinyl Chloride (plastic #3) also banned.</p>	<p>By 2019</p> <p>➔</p>	 <p>Allowed Utensils made of reusable, recyclable, compostable (as shown), and/or biodegradable materials</p> <p><small>Note that plastics #1, #2, #4, and #5 are not permitted because they are not recyclable when used in this type of item.</small></p>
 <p>Not Allowed Plastic straws most commonly made of Polystyrene (plastic #6) will not be allowed. Polyvinyl Chloride (plastic #3) also banned.</p>	<p>By 2019</p> <p>➔</p>	 <p>Allowed Straws made of reusable, recyclable, compostable (as shown), and/or biodegradable materials</p> <p><small>Note that plastics #1, #2, #4, and #5 are not permitted because they are not recyclable when used in this type of item.</small></p>
 <p>Not Allowed Plastic stirrers most commonly made of Polystyrene (plastic #6) will not be allowed. Polyvinyl Chloride (plastic #3) also banned.</p>	<p>By 2019</p> <p>➔</p>	 <p>Allowed Stirrers made of reusable, recyclable, compostable, and/or biodegradable (as shown) materials</p> <p><small>Note that plastics #1, #2, #4, and #5 are not permitted because they are not recyclable when used in this type of item.</small></p>

지난 3개월간의 소식을 나눕니다. 10월달에는 김형범/이계순 장로님 댁에서 점심을 대접하셨고, 이해승 집사님의 “어르신들의 건강이야기: 건강과 압에 대해서”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회원님들 중에 아프신 분들이 많아서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엄인숙 집사님의 허리수술, 이정숙 권사, 윤헌자 집사, 이숙재 권사 폐암 등등, 또 일년 만에 소식을 주신 이은씨, 아드님이 Woburn 중환자실에 계시다고, 하루 빨리 완쾌되시기를 기도합니다.

11월은 북동구역(구역장 김동숙 집사)에서 식사 제공하셨고, 지금은 현역에서 은퇴하신 윤원길 장로님의 어르신들의 건강상 주의하실 것들은 들었고, 윤만강 권사님의 쿠바에 선교여행 다녀오신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다시 한번 모셔서 선교경험이 풍부하신 윤만강 권사님을 언제 다시 모셔서 긴긴 이야기를 들을 예정입니다.

12월에는 윤산만, 신영각, 홍경자 장로님댁에서 점심 제공하셨고, 수고는 정능화 권사님께서 하셨습니다. 식사후 이재명 집사님의 사회로 서로의 마음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꺼내 나누면서 묵은 해를 보내고, 새로운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자고 하면서, 예부터 지켜 내려오는 집안의 맨손 운동법을 소개하였습니다. 손바닥을 서른 세 번 비벼서, 원하는 부위마다 쓰다듬는 그런 맨손 운동법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따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사회

회장 김영미 권사

저희 권사회의 마지막 3개월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11월 10일 정기총회 에서는 2020에 새임원진을 선출하였습니다.

회장: 서명숙 권사 부회장: 이경자 권사

서기: 조순래 권사. 회계: 김정림 권사.

앞으로도 많은 활동을 기대합니다.

12월 1일 에는 해외 선교보조를 지원하였습니다.

12월 15일에는 교역자 및 교역자 가족을 위한 식사대접을 하였습니다. 많은 권사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정성스럽게 준비한 맛있는 음식으로 모두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감사와 힐링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끝난 후에는 성찬식(12월 24일)을 위한 성찬기 닦는 시간도 여러분의 도움으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12월 31일 송구영신예배를 상록회와 함께 특송을 부르며 2019년을 위해 모든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신 모든 권사님들께 감사드리며 늘 우리가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는 2020년 권사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9년에 마리아 여선교회는 세 분의 고문(이성혜 사모님, 전현임, 한정인)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회장 곽서영, 부회장 김희현, 총무 이성희, 서기 이정임, 회계 윤선미, 봉사부장 김경태, 선교부장 전현임, 친교부장 김연희 집사의 임원진을 비롯한 많은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모든 사업을 도와주셨습니다.

1부 다과 및 각종 행사들을 준비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혹은 평일 저녁에도 교회에 나와서 한마음으로 함께 봉사하여 주셨습니다. 각 가정에서 엄마로서 또 아내로서 바쁜 회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마리아의 많은 사업들을 감당하게 하신 주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특별히 올해는 매월 2회씩 중보기도 모임을 가지며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회를 위해 기도하여 왔습니다. 재정적으로는 회비의 부담을 줄이는 대신, 마리아 여선교회가 직접 1부 다과를 준비하여 남긴 수익을 바탕으로 커피팻과 티팻을 새로 구입하고 10여 년 만에 보스톤 한인교회의 이름과 그림이 박힌 50장의 앞치마를 새로 제작하였으며, 교회 각 부서에서 사용하는 밥솥의 내 솔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파악하고 구입하여 보급하였습니다.

10월, 11월 12월의 주요 행사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10월 7일: 30/40 NCKPC 한인 목회자 Conference 만찬 준비
2. 10월 19일: 전교인 가을 대청소
3. 10월 20일: 청년1,2 부 및 중고등부 점심 대접
4. 12월 9일: 노회 미팅 만찬 대접
5. 12월 15일: 앞치마 제작
6. 12월 15일: 정기총회



2020년을 위해 새로이 선출된 김희현 회장과 이성희 부회장 집사님들을 중심으로 곧 꾸려질 임원단들과 함께 마리아 여선교회가 더욱 지혜롭게 교회 안팎의 일들을 잘 감당하며 주님과 교우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0년 에스더 여선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송구영신예배 때 따뜻한 차와 가벼운 다과를 준비하려고 밤 10시 넘어서 교회를 향해 갔습니다.

공식적으로는 2020년 2월부터 새로운 회장단이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게 되지만...

웬지 12월 31일로 지난 사역은 모두 마무리된 느낌이었습니다. 지난 1년 에스더 여선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필요에 맞게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의 큰 행사들이 없는 해이긴 했지만... 여전히 에스더 여선교회를 통해 교회와 성도를 섬기시는 에스더 여선교회 자매님들의 수고는 조금도 덜 하다고 볼 수 없을 만큼 귀하고 감사했습니다.

섬겨주신 한 분 한 분의 삶과 그 가정에 하나님 주시는 셀 수 없는 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2019년 12월 둘째 주일 1시 30분, 101호 방에서 연말 총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맛있는 식사, 디저트, 커피는 자매들에겐 수다의 양을 결정지을 만큼 중요한 것인데요~

여기서 그 날의 수다 주제는...아무래도 새로운 임원단이 기쁨 가운데 나오고 2020년 사역을 준비하기 위한 필요한 안건들이 나누어지는 게 아니었을까요? 결과적으로 그 날의 수다는 아주 아름답고 훈훈하고 멋졌으니... 식사, 디저트, 커피가 맛있을 수밖에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에스더 여선교회이니만큼 선교에 관련한 사역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부회장님께서 하고 계시는 음악 선교 관련한 보고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 더불어 새 임원단에서 선교사역의 방향을 잡아 가고자 하는 의욕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올해부터 플라스틱 사용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방안이 브루클라인 시에서 결정되었기에 에스더에서 주도하여 교회 부엌에서 일회용을 수거하고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숟가락, 포크, 젓가락을 더 채워 넣는 작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많은 교우님들의 응원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2월부터 시작되는 2020년 에스더 여선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에스더에 속한 자매님들이 전 교우님들의 축복에 힘입어 올해도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부청년부

회장 정신영, 황수진 집사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부부청년부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2019년 가을, 겨울 동안에도 따뜻한 교우님들의 사랑과 기도 덕분에 저희 부부청년부는 분주하지만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반기에도 많은 새로운 가정들이 저희 부부청년부를 찾아오셨습니다. 학업, 직장, 또는 연수 등으로 각자 이유는 다르지만 믿음 안에서 한 가족으로 이 땅 보스톤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교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곳 보스톤한인교회에, 그리고 저희 부부청년부에 보내주신 큰 뜻이 있음을 알고 이를 기대하는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중보 부탁드립니다.



11월 둘째 주에는 다시금 온 교회의 교우님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저희 헌신을 다짐하는 부부청년부 헌신예배를 드렸습니다. 각자 육아로 직장일로 삶의 터전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하고자 다짐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찬양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기뻐 춤추며 하나님 앞에 한마음으로 영광 돌리는 모습이 참으로 인상 깊었습니다. 헌신 예배 후에는 부부청년부 총회를 하였습니다. 2019년 한 해동안의 부부청년부 활동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청년부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셨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어린 아이들을 돌보면서도 서로를 아끼며 사랑으로 봉사하는 부부청년부 한사람 한사람들을 바라보며 저희에게 이런 귀한 은혜의 공동체를 주심에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후에는 2020년 부부청년부를 이끌어갈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였습니다.



회장에는 정신영/황수진, 부회장에는 김태훈/육혜진, 그리고 총무에는 이주원/이은미 가정이 선출되었습니다. 낮은 자의 마음으로 공동체를 아끼고 사랑하며,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부청년부를 이끌어 가는 귀한 임원단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협력 부탁드립니다.

12월 말에는 부부청년부 연말 모임을 가졌습니다. 한 해 동안 받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각자 준비해 온 음식과 선물을 나누는 풍성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지

난 한 해를 돌이켜 보면서 어느 곳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음을 깨닫고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는 시간이었습니다. 12월 마지막 주일에는 부부청년부에서 오랜 시간 함께 사랑과 은혜를 나누었던 나해서/김지희, 김원희/서재영, 두 가정의 졸업식을 가졌습니다. 부부청년부를 위해 헌신하며 봉사하였던 귀한 가정들이기에 떠나 보내기 아쉬운 마음이었지만, 부부청년부를 넘어 구역에서 그리고 선교회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2019년을 시작한 지 엿그제 같은데 어느 덧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바쁘게 살아온 한 해를 돌이켜 보게 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부부청년부를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고, 기도와 중보로 사랑을 전해주시는 목사님 그리고 모든 교우님들이 계셨기에 저희 부부청년부가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소중한 한 해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 동안에도 저희 부부청년부가 믿음으로 성장하며, 교회의 일원으로서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해 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연말에 청년 2부는 성탄절 파티와 더불어 함께 기쁨 마음으로 교제하며 서로가 더 가까워지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학기를 마치고 집에 가는 청년들이 있어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좀 앞당겨 12월 15일(주일) 가졌는데, 성탄을 축하하며,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해와서 나누며, 기쁨을 함께 누렸습니다. 이 성탄 모임을 위해 구용한 집사님께서 오셔서 '스트레스' 주제를 다루며 간단한 말씀을 전해주셨고, 청년들을 향한 사랑으로 donation을 해주셨습니다. 12월에 초에는 청년들이 김수영/천민정 목사댁의 둘째 딸 출산을 위해 베이비 샤워를 준비하여,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하였습니다.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시에는 청년1부와 함께 부지형 형제가 만든 곡 '새벽을 깨우며'를 새해를 맞으며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아울러, 신년 주일에는 전통 율놀이를 하며, 즐거운 합성으로 새해를 맞았습니다. 올해 첫 금요 모임은 윤경문 목사님 댁에서 모여, 떡국 잔치를 하며, 새해의 기도제목들을 나눴습니다.

작년 말에 엄순호 형제가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왔는데, 올해 초 (1월 18일)에는 청년 2부에서 만난 전규남/유보라 교우가 한국에서 축복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월 둘째 주부터는 새로운 학기 성경공부가 시작되었는데, 새로운 조(리더: 정운원, 이주영)를 발표하고,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성경공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월 12일에는 임원진/리더진들의 Workshop을 갖고, 올해 6개월간의 계획과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올해 청년 2부 수련회의 날짜는 4/23-25로 정하고, Grotonwood 수양관에서 갖기로 하였습니다.





청지기 청년1부는2020년 표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Jesus Christ”(행 3:6)로 정하고, 복음 안에 바른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며, 주님 몸 되신 교회와 이웃을 섬기고, 비전을 키워가는 청년들이 되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이요한/김희진 목사님 가정을 중심으로 최학수/최안나 간사님, 사공현일/박정은 간사님, 심상길/심세희 간사님 가정이 청년들을 서포트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장 김현모(Joseph), 부회장 이효준, 회계 안성민, 총무 김지운, 찬양팀장 부지형(John), 환영팀장 이지우, 이벤트팀장 김예나와 봄학기 동산지기(소그룹 리더)인 윤석영(Dan), 서수지, 마승은, 안수민이 리더로 섬기고 있습니다.

지난 가을학기동안, 금요찬양집회 시간에는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의 빛들”을 주제로 [빌립보서]를, “결국은 사랑 Love eventually”을 주제로 [호세아서]를 나누었습니다. 주일성경공부 시간에는, [킹덤 라이프]교제를 중심으로 [마태복음], [데살로니가전후서]를 동산별(소그룹)로 성경공부를 나누었습니다. 또한, 가을수련회(11/1-3), 감사카드 쓰기(12/15), Youth Group과의 연합찬양집회(12/20), 그리고 추수감사절과 연말 동안의 친교 및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1월 겨울방학동안에는 [사도행전] 말씀으로 금요집회를, [하나님의 이름]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분기별로 공동체와 이웃을 섬김(프로젝트 섬김)으로 함께 성장이라는 청년 1부가 되려고 합니다. 그 외에, 리더십 트레이닝 & 워크샵(1/24), 봄학기 lock-in(2/14)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청년들을 위해서 늘 가슴깊이 사랑을 담아 기도와 성원 보내주시고, 특히 주일 점심식사로 청년들을 섬겨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봄학기 및 한 학년을 마무리하는 4~5월 동안, 청년들이 학교와 가정/숙소, 직장에서, 주님의 청지기로서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중고등부는 매일 마다 주요 행사를 하나씩 하려고 하는데, 10월의 주요 행사는 이번에 진급한 6학년 학생들을 환영하는 오픈 하우스 겸 Lock-in을 했습니다. 이번 행사의 제일 중요했던 것은 새로운 학생들이 중고등부에서 환영받는 것이었고, 그로 인해 중고등부가 자주하는 게임들, 그리고 다양한 Ice Breaker들로 인해 6학년 학생들을 알아가고, 6학년 학생들이 현존하는 중고등부 학생들을 알아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때 했던 찬양의 밤 역시 서로 기도를 해주고, 서로의 고민과 걱정을 들어주고 위로하는 아주 유익하고 은혜받는 시간이 됐습니다.

11월은 안타깝게도 별다른 주요행사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추수감사절과 학기의 스트레스 가운데 계획할 수 있고 그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날짜가 없어 이번 년도는 행사를 못 한 걸로 예상됩니다. 다음 해에는 어떤 행사를 하는지 기대해주시길 바랍니다.

12월에는 크게 두가지 행사가 있었습니다. 12월 20일에는 청년1부와 함께하는 찬양의 밤이 있었습니다. 청년1부 찬양팀과 중고등부 찬양팀이 합동하여 함께 찬양을 부르고 연주하는 은혜로운 밤이였으며, 이때 느낀 단일성과 조화가 중고등부 학생들과 청년1부 교우님들이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삼세대가 함께 찬양하는 교회를 추구하는 만큼 중고등부와 청년1부의 거리를 좁히며, 문화차이를 극복하고 한 가족같은 사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12월 24일날 중고등부 Yankee Swap이 있었습니다. 간단한 게임을 통해 크리스마스 이브 날 모이고, 그로 인해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둔 좋은 친교를 할 수 있는 날이였습니다. 1월도 계획부족으로 인해 행사가 없을 예정이지만, 다음 해부터는 몇 년 전까지 중고등부 전통 이었던 Coffee House를 다시 개최할까 생각 중입니다.

2019년에 구현우 전도사님이 떠남으로써 교사들이 많은 책임을 짊어지는 상황이 생겼는데요, 이 또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라 믿고 2020년도 중고등부 학생들이 예수님의 구원을 더욱 더 체험할 수 있도록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이번 년도의 있는 많은 행사들, 수련회, Lock-in, 그리고 많은 친교모임들, 모두 다 예수님을 중점에 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중고등부 학부형회 점심식사 준비

‘여호와 닛시’의 은혜가 무엇인지 깊이 배우고 느꼈던 한 해를 감사히 마무리하고, 이제 ‘섬김의 공동체’라는 비전으로 새로운 한 해가 열렸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자라나는 해바라기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함께 할 2020년 새해도 하나님께서 풍성히 베푸실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며, 지나온 가을 학기의 소식들을 전해드립니다.

2019-2020 학년도 새로운 선생님들, 그리고 새로운 부장 집사님!

지난 여름, 오랫동안 섬겨 오셨던 선생님들께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7분이나 사임하게 되시면서, 또 다른 한 해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기도하며 기다리던 시간이 짧지는 않았습니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귀하신 선생님들을 보내주셨고, 각 반의 어린이들과 가장 좋은 선생님들이 만나 함께 하나님을 배워가는 멋진 한 학기를 보냈습니다.



아울러, 안은신 집사님께서 회계를, 윤병준 집사님, 박수진 선생님, 이해민 집사님, 강현기 선생님께서 귀한 달란트를 나누어 주시는 지원팀으로 지난 가을부터 섬겨오시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지난 5년 여름 부장 집사로 든든히, 그리고 신실히 섬겨 오신 진정원 집사님의 뒤를 이어, 최안나 집사님께서 신임 부장 집사님으로 지난 9월부터 섬기고 계십니다!

- Toddler(2-3세): 박미정, 심진희 선생님
- Nursery1(3-4세): 육혜진, 김정연 선생님
- Nursery2(4-5세): 안고은, 손효정 선생님
- Kindergarten(5-6세): 정은아, 서재영 선생님
- 1학년: 박해인, James Yi 선생님
- 2학년: 김현아 선생님
- 3학년: 신재원 선생님
- 4학년: 김승욱 선생님
- 5학년: Lydia Yi 선생님



The children's ministry of the Korean Church of Boston joined "Children's Change for Change" last Fall to be a part of supporting the Boston Food Justice Young Adult Volunteers, and just sent what was raised to the program on behalf of the children. You can see in the pictures below that the children made, colored, and decorated their own boxes in which they collected change for a month before returning the boxes to the church.



Changes for Change!

지난 10월 6일 정의 평화 환경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가 속한 보스톤 노회(Presbytery of Boston)로 파송된 청년 봉사자(Young Adult Volunteer, 이후 YAV) 프로그램에서 Food Justice를 위해 일하는 Sierra Mink를 초청하여 그의 사역에 대한 나눔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에 11월 중순까지 약 한 달간 어린이들이 각자 집에서 동전을 모아 최소한의 음식이 나누어지지 않은 이들을 위해 일하는 Boston Food Justice YAV program에 전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반에서 저금통을 만들고, 꾸미고, 한 달 후에 교회에 가지고 왔는데... 70여 개의 무거운 저금통에 모인 셀 수 없이 많은 동전들을 보며 '여호와 닮은'을 외쳤습니다. 적은 액수의 동전들이지만 모으면 무시하지 못할 가치를 이루듯, 어린이들을 통해서도 귀한 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귀한 기회였습니다. 아울러 보스톤 노회에서도 이 소식을 뉴스레터에 내보내며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였습니다.

새교우 환영반

교인 1부 위원장 이문영 장로
보고 신준섭 집사

교인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새교우 환영반을 진행하였습니다. 새교우 환영반을 수료하신 새가족들을 위하여 박중세/신선희 집사님 가정에서 풍성한 음식으로 만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새가족들을 위한 두 분의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11월 새교우 환영반 수료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지용/정유선 가정은 직장 때문에 보스턴으로 이주하셨고 좋은 신앙 공동체를 찾던 중에 보스톤한인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지용 교우님은 어린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하셨고, 정유선 교우님 또한 결혼과 함께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슬하에는 두 자녀 채린 (17), 채원(16)이 있습니다. 현재 중서 3구역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문정일/석은희 가정은 문정일 교우님께서 99년도에 보스턴으로 유학을 오신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보스턴과의 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정일 교우님께서서는 지인의 소개로 보스턴한인교회에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보스턴한인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현재 북서구역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David Kim/임승하 가정은 4년전 시카고에서 보스턴으로 이주하셨습니다. 보스턴에서도 좋은 신앙공동체를 만나 잘 정착할 수 있어 감사하고 소속되어 있는 북동구역을 통해 앞으로도 신앙적으로 더욱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박차선 교우님께서서는 Chestnut hill에 거주하고 계시고 현재 중앙 2구역에 소속되어 계십니다. 좋은 신앙공동체를 만나 감사하고 앞으로도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길 원합니다.

김정호/신세아 가정은 신세아님의 직장을 따라 보스턴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김정호 교우님은 대학시절 할머니의 권유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시카고에서 신세아 교우님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신세아 교우님 또한 시카고로 이민하여 성장하셨고 이민생활 속에서 신앙공동체를 통하여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현재 부부청년부에 소속되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이명주 교우님께서서는 지난 2015년 보스턴한인교회에 처음 방문했었으나, 꾸준히 출석을 하지 못하였지만 네 살 된 아이가 여름 성경학교를 너무 좋아하는 것이 계기가 되어 다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Westwood에 거주하고 계시고 중서 3구역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KCB 나누고 싶은 모습들



보스톤 노회



유년주일학교- Changes for Chan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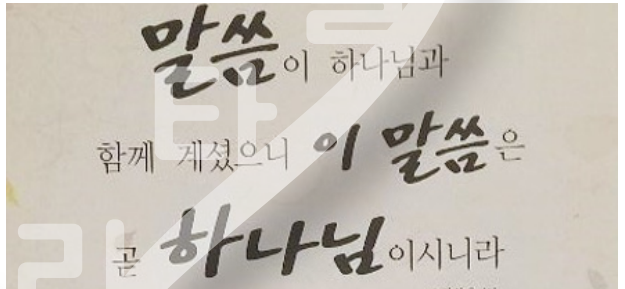
과테말라 해외 단기선교팀



유년주일학교-Christmas Eve 찬양과 율동



성탄이브- 촛불예배



2020년도 교회 달력



성탄주일 유아세례식

The Korean Church of Boston
(PCUSA)
32 Harvard St.
Brookline, MA 02445
T: 617-739-2663
F: 617-739-1366
www.kcboston.org
담당목사: 이 영 길



보스톤한인교회
The Korean Church of Boston (PCUSA)